만다라

몇년전으로 기억되는데 선생님 그림의 포커스는 어디냐고 어느 제자가 물었을 때 보이는 부분과 아스라하게 지워져 보이지 않게되는 언저리라고 말한 뒤로 나는 곰곰히 그 연유를 생각하게 됐었다.

내 어린시절 어머니에 대한 진한 그리움으로 몸살을 앓았는데 아버지는 시골국민학교로만 전근을 다니시고 어머니는 중풍으로 누우신 할아버지 수발하시며 농사 짓느라 우리 형제들은 나이따라 저절로 이산가족이 되었다. 나는 취학전 일찍부터 아버지를 따라 이곳 저곳 객지로 이사다니며 텅빈 교장관사에 혼자남아 먼산만 바라보았다. 누나 형들 아버지 다 학교에 가고나면 나는 툇마루에 동그라니 혼자 앉아 고향쪽으로 난 고갯마루를 쳐다보는 것이 일이었는데 어쩌다 운이 좋을 때는 흰 옷자락 펄락이며 누군가 저 하늘과 땅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산길을 내려온다.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보이지 않는 생명의 실체 잡힐듯 다가서면…

이번엔 틀림없이 어머니다하고 다짐해놓고 기다린지만 땅거미 내리는 저녁 어스름까지 텅빈 운동장 가로질러 관사로 들어서는 이 아무도 없다. 가끔 눈앞이 안개처럼 뽀얗게 흐려지고 가슴이 메어오면 나는 마음을 돌려먹고 엎드려 그림을 그린다.

마음에 들때까지 어머니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린다. 항상 내 그림속의 어머니는 돌아 앉은 뒷모습이었는데 너무 보고 싶은 사람 마주보다 내 마음 들킬까봐 수줍고, 내 서투른 그림솜씨로 어머니의 아름다운 환상을 깨뜨릴까 겁이 났다.

77년부턴가 빛을 주제로 줄곧 그려오는 지금의 그림에서도 '생명의 근원-나의 절대 이상'은 뽀얗게 지워져 암시만을 남긴다. 한발 두발 걸음마를 배워 이제껏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보이지도 들리지도 더구나 만질수도 없는 곳에 우리의 소중한 그 무엇이 있음을 자주 잊은 채 주변만을 두리번거리며 무명속을 헤맨다.

잡힐듯 다가서면 그만큼 물러서는 무지개를 따라 끝없이 옮겨가는 발자취- 그림앞에서 보여지는 것은 다만 빛을 향한 징검다리일뿐 그 실체는 보는 이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기를….

하동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수)

거친 파도를 넘어서 ③

주부신행담

"널 사랑한단다 언젠가는 꼭 데리러 오마"

떨리는 마음으로 일주문을 들어서서…

뉘엿뉘엿 날이 저물 무렵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어디서 내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산 길을 걷고 걸었습니다.

얼마를 걸었는지… 인가는 보이지 않고 밤이 깊어가자 근처에서 잠 잘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10시가 훨씬 지나서야 하룻밤 지낼 곳을 찾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고 내 손에는 얼마 전 아이를 위해 만든 좁쌀을 넣은 작은 베개가 만져졌습니다.

아이와의 마지막 밤, 눈물이 마구 쏟아졌지만 아이에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널 사랑한단다. 언젠가는 꼭 널 데리러 오마." 이런 내 마음을 아이의 마음에 전했습니다.

밤새워 아이를 품에 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나는 새벽녘 남편의 제안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스님께 말씀드리면 허락하지 않을테니 그냥 법당에 놓고 품속에 편지를 써서 넣어두자는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일주문을 들어서서 법당에 들어가 참배를 한 후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씨 좋아 보이는 보살님에게 따뜻한 방에서 잠시 쉬었으면 좋겠다며 방을 안내받은 후 그곳에 아이를 뉘여 놓았습니다.

'이젠 정말 이별이구나… 아가야 미안하다.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눈물도 훔치는둥 마는둥 뛰쳐나왔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않고 서울행 버스를 타기 위해 뛰었습니다.

"형님, 아이는 어디에 두고 오셨어요?" 동서가 묻는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아이를 데리러 동서집에 들렸더니 무슨 일이 있었음을 금방 알아차린 동서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마침 그날엔 시아주버님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모두 동서집에 모였습니다. 꼬치꼬치 캐묻는 식구들의 고집에 하는 수없이 사실대로 다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시아버지께 남편이 밉다고 원망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놀라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가서 아이를 데려오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께 사정없이 뺨을 맞았고 급기야는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이놈은 내자식이지만 이제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니 더 고생하기 전에 모진마음 먹고 새출발 하거라."

동네 어귀에서 동서의 둘째 딸아이가 익살스럽게 웃으며 노는 모습을 보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두고 온지 얼마가 지났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악몽같은 시간이 반복됐습니다.

동서들은 이왕 독한 마음을 먹은 김에 독하게 살라며 나를 위로했지만 아이에 대한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파멸감만 더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문득 부처님을 찾아 가야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곧바로 북한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연화사를 찾았습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으로 등을 하나 켜고 모든 마음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만 들던 명동길은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의상실을 찾아 취직을 하려 했지만 서울이란 곳은 그렇게 살아가기에 쉬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문제로 힘겨운 세월을 이겨내던 내 옆에서 남편은 늘 말없이 나를 지켜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남편은 내 아픔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복이 많아 잠시 내 몸을 빌렸을 뿐 좋은 부모 인연을 만나 분명 행복하게 잘 살거야.' 이젠 이런 믿음이 사실이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경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업을 소멸하고 아이의 복을 빌었습니다.

이때쯤 돼서 남편과의 충돌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로 큰소리 내는 일이 많아지다보니 자연히 큰 아이는 늘 불안한 얼굴로 눈치보기에 급급해 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죄없는 아이에게 화풀이로 손찌검까지 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러다보니 남편은 자연히 직장과 가정 어느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내게 매를 맞은 큰아이는 늘 아무 불평없이 보살펴주곤 했는데 그건 둘째 아이에 대한 내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묵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면목동으로 이사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몇번이고 옮겨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야 만 것입니다.

오정숙 (홍제동 정토포교원)

영어로 배우는 경전 — 숫타니파타 ⑮

♦ Wishing for the destruction of desire (Nibbana), being careful, no fool, learned, strenuous, considerate, restrained, energetic,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애착을 없애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범어리도 되지 말라. 부지런히 배우며 마음을 가다듬고 진리를 깨닫고자 노력하면서 저 광야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Like a lion not trembling at noises, like the wind not caught in a net, like a lotus not stained by water,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물에 젖지 않는 연꽃과 같이 저 광야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As a lion strong by his teeth, after overcoming (all animals), wanders victorious as the king of the animals, and haunts distant dwelling-places, (even so)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이빨이 강한 사자가 뭇 짐승을 제압하고 능히 정글의 왕으로 군림하듯 궁립하고 외딴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Cultivating in (due)time kindness, equanimity, compassion, deliveranec, and rejoicing (with others), unobstructed by the whole world,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과 해탈을 때때로 익히고 이 세상을 아주 저버림도 없이 저 광야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stain 더럽히다, 얼룩지다.
*haunt (사람이)빈번히 방문하는 곳.
*rejoice 기쁘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

한명우 기자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전문 회사 —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체품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드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 매트리스 사용 —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배로 견딜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GRAND FANTASIA

꿈의 나래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 파주군 광탄면 마장2리 180-18
•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품질보증

생활속의 불교 ㊽

빈 맷돌로는 아무것도 갈 수 없다

우리의 육신은 지·수·화·풍 사대가 인연따라 뭉친 것이고, 인연이 다하면 다시 사대로 흩어진다고 한다. 고로 육신은 실체가 아니라 가(假)화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듯이 육신이 있기에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낀다. 육신이 있기에 불법을 공부할 수도 있다. 육신이 없으면 상대를 알 수 없고 현상계니 우주니 하는 말도 의미가 없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울 수도 없게 된다. 우리가 죽어 모습을 잃으면 업식·혼백만 남아 더함도 덜함도 없게 되니 수행을 할 수도, 지혜를 넓힐 수도, 마음을 계발할 수도 없다. 견성성불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고로 육신을 허망한 것이라 하여 그 모습을 확대하면서까지, 그 모습을 하찮게 여기면서까지 불법을 알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육신은 마음의 진화, 지혜의 터득을 매개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계·정·혜 삼학을 닦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6년의 고행을 마감하고 우유공양을 받으심으로써 육신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도구를 망가뜨려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신 것이다. 육신의 균형(건강)은 불법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것이다.

육신은 과거의 저장고이다. 사대를 재료로 삼은 인연 도리의 뭉치이다. 과거에 신·구·의를 쌓아 올린 업식의 산물이다. 고로 불법을 바로 알자면 먼저 오늘의 내 모습이 이렇듯 살아 움직이는 도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인연이 무엇인지, 업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야 본래적인 자유가 어찌해서 속박을 당하는지도 알게 된다.

불법을 알려거든 먼저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느껴야 한다. 육신이라는 도구를 통해 직접 부딪쳐 보아야 한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일상의 행을 통해,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와의 만남을 통해 느끼고 점검하고 배워야 한다. 팔만대장경을 달달 외우고, 교학을 가로세로로 꿰뚫는다 해도 직접 부딪쳐 보지 않고서는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집짓는 데 필요한 자재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다 해도 그 재료를 이용해 직접 집을 지어보지 않고서는 집 짓는 도리를 안다고 말할 수 없고 유명한 건축가로 행세할 수 없다. 먹어 보아야 맛을 아는 것이다. 고로 몸이 있을 때 공부하라. 육신 멀어지면 불법도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불법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삶이 아닌 습관적인 삶은 실천이 아니다.

매 순간순간 나의 언행,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밝게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가 육신을 통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은 불법공부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고로 우리는 모든 일에 초심자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비록 해본 일, 아는 일이라 해도 처음 마주하는 것처럼 긴장감으로 몰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몸 살림은 빈 맷돌을 돌리는 것과 같아진다. 불법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

협찬: 김숙례 主慧

불법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